



# 12월, 깐달건달 캄보디아 점수 막판 스퍼트!

## 캄보디아 깐달건달, 12월 일정

Mon	Tue	Wed	Thur	Fri	Sat	Sun
			1	2	3	4
			CDP ENGLISH	CDP 간사님들 도착!	중간평가	
5	6	7	8	9	10	11
중간평가			CDP COOKING 준비	CDP 축.양수생일 COOKING (유부초밥, 라면)	세계인권의 날 행사 참여	프놈펜 버스투어 (양수.도회)
12	13	14	15	16	17	18
CDP HANDICRAFT (산타.루돌프 색 종이접기)	CDP 크메르어수업	CDP 한국어수업 도서관프로젝트 설문조사	CDP 크메르어수업 영어수업 유스캠프 회의	놀이	축.양수생일 도서관프로젝트 책, 보드게임 구매	도회승연 2번버스 정복
19	20	21	22	23	24	25
CDP GAME day	도회승연 1번 버스 정복 350PPM	CDP 한국어수업	CDP 350PPM	CDP 유스캠프 사전조사	프놈펜 나들이	크리스마스 성당봉사
26	27	28	29	30	31	
CDP 따꼬마의 클러보기	CDP 아띠 스펀파티	CDP	CDP	CDP 아띠시장 season2	프놈펜 나들이	

#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형님.

## 형님들의 나와바리

-기다달기달 여행사의 중간평가-----	3
-모양판례-----	15
-사랑책_소리영-----	20
-아띠시장 season 2-----	23

## 형님들의 나와바리, Caritas

-Library project-----	28
-----------------------	----

## 우리 YDP한다

-아띠 스물파티 개최-----	31
-Game Time-----	36
-쿠킹클래스(feat. 축종수양수 생일!)-----	39

## 우리 CDP도 한다

-드디어 수확-----	42
--------------	----

## 제1구역, 캄보디아

-도희와 함께 떠나는 프놈펜 여행-----	46
-버스투어 2탄-----	52

개인 에세이-----	55
-------------	----

## 깐달건달 여행사의 중간평가

어느 덧 캄보디아에 온지도 3 달이 되는 12 월.  
우리도 중간평가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찾아 올지 몰랐지만  
어느덧 간사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와 함께 우리의 준비도 시작되었다.



12 월 2 일 밤.

까리타스 직원분 중 한 분인 우뜸과 함께 우리는 공항에 마중 나갔다.  
생각보다 일찍 오게 되어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규홍 간사님과 혜경 간사님을 기다렸다.  
그리고....



누구보다 해맑은 웃음으로 혜경간사님이 나오셨다.  
거의 100 일 만에 만나서 반가움은 더더욱 컸지만 마치 어제 헤어지고 만난 사이처럼 어색하지 않았다.

비행기가 연착이 된 규홍간사님도 뒤늦게 합류!!  
우리는 그렇게 6 명이 완전체가 되어  
새벽 1 시 20 분에 집에 도착 할 수 있었다.  
피곤했지만 이야기 꽃을 피우며 그렇게 밤을 보냈다.



12 월 3 일 두번째 날.

캄보디아에 있는 많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프놈펜 탐방 계획을 세웠다.  
그 첫번째가 바로 왓프놈이라 불리는 프놈펜의 유명한 사원이다.  
이곳에서 우린 힌두교와 불교가 융합되어 있는 사원을 볼 수 있었고  
캄보디아의 문화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두번째로 간 곳은 프놈펜에서 가장 큰 센트럴 마켓이었다.  
그곳에서 도회는 여행사의 직원처럼 이곳 저곳을 소개하며  
필요한 물건을 물어보고 자신이 자주 가는 가게를 가서 물건을 사게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뒤에 규홍간사님과 혜경간사님은 우리에게 말했다.

*간달건달 여행사 참 좋네요. 효도관광 온 것 같아요*

세번째로 간 곳은 E-On 몰

캄보디아에서는 이렇게 큰 쇼핑몰이 이곳 밖에 없어서

여기도 큰 관광지이며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과

외국인 사람들이 섞여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신기 신기~~

그리고 저녁!! 우리는 대망의 하이라이트  
고기 바베큐를 선보였다!



물론 간사님도 불을 피우기 위해 고생하셔야 했다.





그렇게 우린 순두부 찌개와 삼겹살로 맛있는 저녁을 먹었다.  
설거지 게임으로 병뚜껑 치기 게임을 했는데  
첫번째 순서였던 규홍간사님이 너무 짧게 치셔서 유력후보였지만  
도희가 규홍간사님의 병뚜껑을 밀치면서 후보에서 벗어나셨다.  
그때 규홍간사님의 환호와 표정은  
내가 본 규홍간사님중 가장 해맑고 신나 보였던 순간이었다.  
결국 승연이가 설거지, 종수가 치우기 담당이 되어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다 열심히 치우고 있었다.



전부 다 비웠다. 그 많은것을..ㅎ

12 월 4 일 세 번째 날.



어제가 프놈펜 탐험이었다면 오늘은 따그돌 마을과 따그마의 탐험이었다.  
집에서 따그마의 시장까지는 약 30 분 거리지만 우리는 걷기로 했다.  
걸으면서 주변도 보고 마을 사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살펴보기로 했다.





따그마의 사원은 크고 화려했다.  
규홍간사님이 마을 사원을 보면 그 마을 경제 수준을 어느정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따그마는 꽤 잘 사는 마을인 것 같다.



사원과 마을 그리고 따그마 시장을 다 둘러본 후 우리는 캄보디아 국왕께서 살고 계시는 궁전으로 갔다.  
우리의 이동수단은 물론 툽툽이라 불리는 오토바이 마차이다.  
그 승차감이란~ 겪어본 사람만 안다.  
특히 도로가 아닌 마을로 들어서는 흙길을 갈때가 최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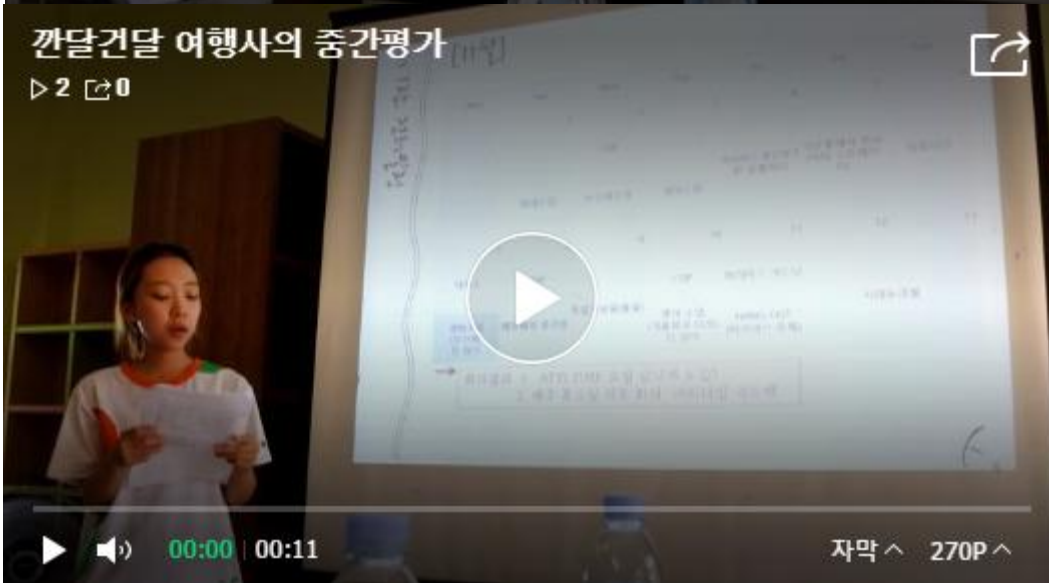


왕궁을 둘러보고 모안 툰레라 불리는 강변을 둘러 보면서  
우리는 사진을 많이 찍었다.



왕궁은 밤이 훨씬 아름답기에  
밥을 먹고 다시 이 곳으로 돌아와 사진을 찍었다.  
건달을 표현하기도 하고 왕궁을 표현하기도 하며  
우리는 재미있게 주말을 보냈다.

그리고 12 월 5 일 월요일.



중간 발표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한국어와 영어로 프리젠테이션을 발표했고  
개인 에세이는 크메르어를 사용하기도 하면서 발표를 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많은 이야기를  
회의를 통해 나눌 수 있었다.

이 날은 희경 간사님 생일이기도 했다.  
그래서 우린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했다.

케익과 미역국을 준비하고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다.  
그리고 강변에서 시간을 좀 보내다가 저녁시간에 맞춰 집으로 돌아와  
생일파티를 했다.



선물을 받고 좋아하시는 간사님들  
그리고 다 함께 저녁 타임 시간!!



그렇게 월요일의 밤도 흘러갔다.

화요일 날 규홍 간사님이 수요일 날 혜경 간사님이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는 정말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개인 면담도 시간을 정해서가 아닌 자유로운 시간. 그때 그때 면담을 했고  
우리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생각하게끔 만들어 주셨다.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시도할 것이고  
징검다리의 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간사님들 고생 많으셨어요!!

한국가서도 화이팅!!

by 썬썬

형님들의 나와바리, TAKMAO

## 모암뚝레(강변)

# 에어로빅 같은 에어로빅 아닌 너.



6 시쯤 강변운동

저녁에 시장을 지나 강변을 걷다가 땅까지 울리게 하는 큰 음악소리와 같은 색의 옷을 입고 춤인 듯 춤 아닌, 에어로빅 같지만 에어로빅은 아닌 율동 같지만 춤 같은, 에어로빅 같은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무리를 발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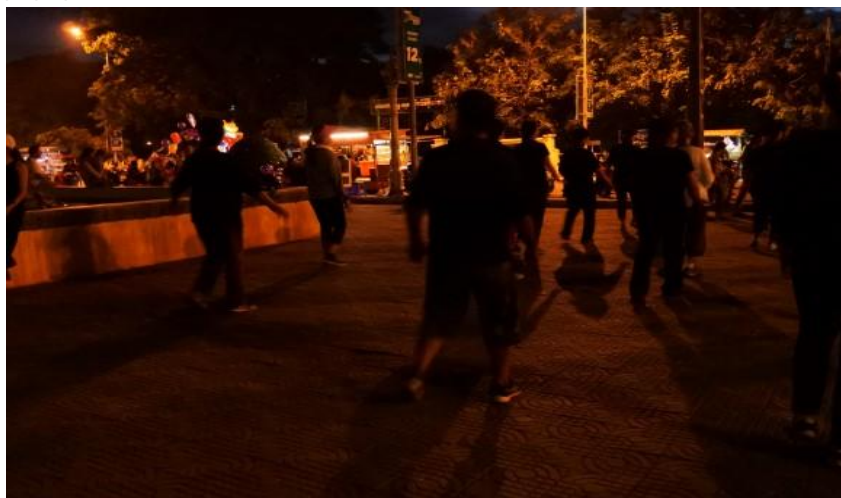
한국에서 못해도 스트레칭은 매일 했었는데 이곳에서는 거의 못 했다. 아니, 여유를 게으름으로 만들어버렸다. 신난 리듬에 춤 아닌 춤을 추고 있는 무리들을 처음 본 날 나는 다짐했다. 내일은 나도 꼭 그들과 함께 해야지! 다짐에 다짐을 기했다. 드디어 내일이 되었고 아따 타임이 끝나자마자 강변으로 달려갔다.

강변 중앙부터 굉장한 비트가 바닥을 울렸고 모두 하얀 옷을 입고 운동을 하고 있었다. 어제 분명 저 맨 뒤에 서서 운동해야지라고 다짐했는데.. 막상 혼자서 갑자기 들어가려니 너무나 부끄러웠고 어떻게 저기에 낄까 주변에서 10 분은 고민했던 것 같다. 강변에 날 데려다준 우뎜은 모토에 앉아 우물쭈물 대는 나를 보며 킁킁대고 있었고 나는 어떻게 하나며 부끄럽다고 우뎜에게 투정 아닌 투정을 부렸다.

그냥 첩판 깔자.

나의 짧고 강한 다짐과 함께 나는 맨 뒤 줄에 서서 한 동작, 두 동작 따라 했고 처음에는 들어가기조차 힘든 그 무리 속에서 어느새 굉장히 어설피지만 신나게 따라 하고 있었다. 내 옆에서 운동하시던 아저씨, 지금은 내가 퉁퉁이 아저씨라고 귀여운 별명으로 부르는 아저씨 가 있다. 그 아저씨와의 첫 만남은 내가 운동을 시작한 날이다. 외국인이 우물쭈물 대다가 들어와서는 눈치껏 따라 하는 모습이 안타까웠거나 귀여우셨는지 옆에서 거의 개인교습을 해주셨다.

무어이, 뽀, 바이, 문 (하나, 둘, 셋, 넷) 구호도 붙여가며 동작들의 순서를 계속해서 나에게만 알려주셨다. 아마 내가 너무나 어설피거나 안타까웠거나 귀여웠거나 이유는 분명 셋 중 하나다.



가운데, 퉁퉁이 아저씨:)



이날 이후로 막내가 항상 나를 따라서 강변에서 운동을 함께했다. 아직도 동작은 쉽지 않다. 강변 에어로빅에는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 맨 앞에서 운동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느 날은 할머니선생님, 어느 날은 이모뺨의 선생님. 이모선생님은 굉장히 동작이 빨리 바뀌고 따라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서 시간이 훌쩍 간다. 하지만 할머니 선생님은 팔운동이 거의 집중적이고 동작이 늦게 바뀌다 보니 운동을 하다 보면 약간의 지루함이 느껴진다.

요새는 우리도 운동 좀 나와 봤다고 선생님을 평가한다.



검은 옷인 화요일 강변운동 현장 (지금은 후반부쯤이라 에어로빅 보다는 춤에 가깝다)

운동은 5시부터 7시까지다. 하지만 오후에 비가 온 날은 하지 않는다. (4시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가봤자 아무도 없다.) 5시부터 6시 정도까지는 빠른 비트의 노래에 맞춰 좀 더 에어로빅에 비슷한 운동을 한다. 이후의 시간에는 느린 비트에 캄보디아 전통 춤인 압사라와 비슷한 동작을 한다. 길거리 운동이지만 굉장히 짜임새가 있다. 심지어 요일마다 맞춰 입는 옷 색깔도 정해져있다.(통통이 아저씨에게 물어봤다.)

- 월요일 - 노란색
- 화요일 - 검은색
- 수요일 - 초록색
- 목요일 - 주황색
- 금요일 - 흰색
- 토요일 - 흰색
- 일요일 - 빨간색

아, 중요한 건 공짜는 아니다. 매일 돈을 걷는지는 모르겠으나(어느 날은 걷었는데 또 어느 날은 걷지 않기도 하고, 진짜 이걸 모르겠다.) 6시 정도 되면 한 사람당 1500 리엘씩 걷는다. (\$1=4000 리엘)

---

## # 산책, 외식, 소풍, 나들이, 데이트

주민들에게 따끄마르 강변은 삶의 일부이다.

어린 아이들은 친구들과끼리 놀러오기도 하고, 가족 외식을 하러 강변에 나오기도 하고, 산책이나 운동을 하러 강변에 가기도 하고, 연인들은 데이트 하러 강변에 오기도 하고, 남녀노소 할것없이 다양한 이유로 모든 이들이 강변을 찾는다. 물론 나도 강변을 거의 매일 가는 사람 중 한 명이다. 운동을 하러 가기도 하고 생각을 하러 가기도 하고 사람들 만나러 가기도 하고 옥수수 사러 가기도 하고.



강변으로 놀러 나온 아이들



k-pop을 사랑하는 캄보디아 청년들



강변 따라 쪽 늘어선 길거리 음식점들



길거리 음식점에서 산 음식들을 벤치에 앉거나 강변에 차려진 식탁에서 외식하는 사람들

처음 강변에서 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우리의 동작 하나하나에 따라다니는 시선들이 굉장히 많았다. 아무래도 강변 운동 자체가 음악을 땅이 울릴 정도의 진동으로 크게 틀어놓고 하기에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데 거기에 외국인까지 있어서 더 신기한 광경을 만들었던 것 같다. 이제는 이런 시선들도 조금씩 줄어들었다. 우리가 익숙해진 것이다.

이런 익숙해짐. 굉장히 좋다. 행복하다.



## 사람책\_솜리엥

1.

지하철도, 버스도 대중화되지 않은 이곳 캄보디아. 집에서 슈퍼마켓, 시장, 세탁소와 같은 편의시설에 가려고 해도 걸어서 족히 40 분은 걸리고, 마을 안에 있는 거라곤 구멍가게와 온갖 잡다한 초록색들뿐. 우리는 하다못해 휴지를 사기 위해서라도 모토나 툽툽을 반드시 타야 하는 곳에 118 일째 살고 있다.

2.

몇 번의 배낭여행을 통해 느낀 점이 있다면, 한 나라의 대중교통은 그 나라만의 정서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콕의 BTS는 태국의 도시적이고 변화한 분위기를, 오사카의 지하철은 일본의 소박하면서도 체계적인 분위기를 담고 있었다. 캄보디아의 대중교통인 모토나 툽툽도 마찬가지다. 캄보디아의 빈티지함, 낯설지만 정이 가는, 다소 붐 뜬 것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3.

솜리엥을 소개받은 건 캄보디아에 막 도착해 까리타스 직원들과 가졌던 9월 첫 미팅 때였다. 아는 것이라곤 "죤리업쑤어"랑 "죤리업리어"밖에 없었던, 한마디로 캄보디아 무식자였던 우리에게 솜리엥은 구원이었다. 그를 만난 건 마치 쟁기로 밭을 갈던 인간에게 농기계가 주어진 것과 같은, 돌을 비벼 불을 지피던 인간에게 라이터가 던져진 것과 같은 격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 솜리엥의 구원 1. 정찰제

모토, 특특 기사들과 가격 흥정을 하며 벌이는 그 미묘한 신경전은 상당히 골치 아프고 피곤하다. 이제는 어느 정도 아저씨들과의 기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생겼지만, 초반에는 강경하게 비싼 값을 부르는 아저씨들 앞에서 동공이 흔들리고 이거 어쩌나 싶은 마음이 먼저 들었다. 아직 흥정 쫓보였던 우리에게 솜리엥은 '정찰제'라는 구원을 내려주었다. 우리는 단숨에 그의 단골고객이 되었다. 아마 솜리엥이 없었다면 우리는 날씨와 시간에 따라 천차만별인 특특 물가에 적응하지 못한 채, 온갖 종류의 캄보디아 바가지들 다 써봤을 것이다.

### 솜리엥의 구원 2. 말하지 않아도 알아리엥!

솜리엥은 꽤나 오랫동안 라온아띠 캄보디아팀의 전담 특특기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실로 엄청난 경력으로 인정된다. 단순히 우리집의 위치를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주 가는 럭키마트, 이온몰, 프놈펜 DVD 상점, 한인마트 하다못해 팀별 성향까지 파악해서 우리가 자주 갈만한 곳까지 소개해주시니 말이다.

### 솜리엥의 구원 3. 미소천사

솜리엥은 마주하는 사람마저 예의 바르고 미소 짓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컨디션이 좋으나 나쁘나 그는 언제나 웃는 얼굴이다. 캄보디아에 막 도착해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에게 프놈펜 이곳저곳을 소개해주며 가이드 역할을 해준 우리의 특특기사님 솜리엥. 최근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우리를 마을로 바래다 주신다. 매일 아침, 쟁기를 등에 업을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지만, 솜리엥의 웃는 얼굴을 보면 "그래, 쟁기 까짓거" 하는 긍정 에너지가 솟아난다.

### 솜리엥의 구원 4. 캄보디아 정 전도사

\*주관주의

어느 날, 나는 반복되는 아침농사-저녁아띠타임 일상에 지쳐 혼자 마을을 벗어나 보자고 마음 먹었다. 그때는 아직 마을의 입구도 찾지 못할 때라 혼자 밖에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도전적인 일이었다.

해가 진 따고돌 마을은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어두웠다. 한집 한집 지날 때마다 개들이 짖어대고 얼굴에는 거미줄인지 뭘지 무언가가 붙은 것 같고 비도 올 것 같고 느낌이 썩-하고 그렇다. 약간 쫓보가 된 나는 MP3에 몇 개 없는 걸그룹 노래를 틀었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다잡았다. 그렇게 걷고 또 걸어서 모토를 잡아타 슈퍼에서 술과 견과류를 샀다. 생각보다 술에 큰 지출을 해버려 집까지 걸어 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때! 무언가 익숙한 특특이 옆에 섰다. 솜리엥이었다! 아니,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특특에는 솜리엥 아내와 딸이 타고 있었고 그는 친절하게도 나를 집 앞까지 태워다 주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내가 이 Takmao province의 주민이라는 느낌을 단 한번도 받지 못했다. 열 걸음에 한번씩 모토를 탈 건지 물어보는 낯선 아저씨들, 아슬아슬하게 내 옆을 지나가는

트럭들, 개들이 어슬렁대는 거리, 텅텅한 공기... 도무지 정이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아는 사람이 나를 불러주고 태워다 주기까지 하니, 그렇게 고향 같을 수 없었다. 그때 처음으로 캄보디아도 살만한 나라구나 라는 걸 느꼈던 것 같다. 나에게 초코파이를 능가하는 정 전도사가 있다면 그건 바로 솜리엥이다. 심지어 며칠 전 솜리엥은 뜬금없이 우리를 태운 채 자신의 집으로 가더니 집안을 구경시켜 주었다. 우덤 집에 이어 두 번째로 방문해본, 아주 정겨운 캄보디아 가정집이었다.

## 아띠시장 season2

유스들의 마지막 시험이 끝나고, 아띠타임도 끝이 났다. 저녁 일정이 사라지니 시원섭섭했지만, 빈둥대기에도 지쳐 어떤 일이라도 해볼까 했다.

무엇을 해볼까. 친한 유스들의 집에서 하루 묵으며 밀착 취재를 해볼까, 어떤 주제로든 영상을 만들어볼까, 마을 아이들과는 어떻게 한 번 제대로 놀아볼까,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중 우리를 바로 움직이게 만든 주제는 '다시 한 번 아띠시장'이었다.

이번 시장은 season1의 '물물교환'과는 다르다. 진짜로 물건을 판다. 그리고 대상은 까리따스 학생들에서 따꼬마의 주민들로 바뀌었다. 판매 물품은 나에게 넘치는 것 또는 한국 문화가 섞인 간식이다. 그리고 이번 아띠시장의 수익금은 350ppm을 연결해 비닐봉지와 페트병을 무지하게 쓰는 유스들에게 텀블러나 손수건을 선물해 주는 것으로 쓰일 것이다.

올 때 미숫가루를 2kg나 가져왔었는데 중간에 팀원이 한국에 다녀오며 미숫가루를 더 가져다주었다. 그래서 나에게 남은 미숫가루가 남아있다. 내가 사랑하는 미숫가루를 이곳 사람들에게도 맛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난 재활용 페트병에 미숫가루를, 승연이는 한국에서 자주 먹던 고구마 맛탕을, 종수는 라면땅을 만들어 팔기로 했다.



미숫가루, 라면땅, 고구마맛탕

본격적인 시장을 열기 전에, 아주 조금만 가지고 나가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해보고자 했다. 연말이니 가족 또는 연인과 시간을 보낼 까리따스 학생들에게 도와달라고 하기가 미안해 아침에 팽이질을 함께한 우덤과 러티에게만 부탁했다. 오후에 잠깐만 도와달라고.

5시. 열심히 온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들을 들고 약속했던 우덤과 러티를 만나러 까리따스에 갔는데

우리가 부탁한 우뚝, 러티 말고도 함께 강변에 가고 싶다는 친구들이 많이 나와있었다. 싸몬, 원넷, 썬히을, 라몬, 쓰라이노이,



판 벌리는 중



판매 시작!!! 꼬레 놈 맛보세요~ 맛있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장사를 한다고 보일 수 있게끔, 자리를 펴고 그 위에 우리가 만든 것들을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그리고 친구들은 '꼬레 놈(한국 간식)'이라고 쓰여있는 이면지를 들었고, 본격적으로 우리의 아띠시장 season2 는 시작되었다. 기세등등하게 가져왔지만 뭔가를 파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어리숙하고 미숙했는데 오히려 까리따스 친구들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 맛있다며 이것저것 소개를 하며 시식을 권했고 바로 물건을 팔아왔다.



처음엔 너무나 어색했던 '다가감'





조금씩 관심을 보여주시던 사람들



각 사진 속에서 손님은.... 1~2명.. 안사면 맞을 것만 같은 분위기



아주 조그맣게, 우리끼리만 후딱 가서 반응만 보고 올 생각으로 판을 벌렸던 오늘의 아띠시장이 의외로 어느 때보다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강변에 친구들끼리 놀러 온 따꼬마의 주민들에게 맛있는 한국 간식을 맛 보일 수도 있었고, 친구들과 놀러 온 꼬마대장이 친구들 앞에서 멋지게 간식을 사는 기회를 줄 수도 있었다.



아주 통크게 5개나 사줬던 꼬마대장. 커서 크게 될거야.

솔직히 말하면, 우리끼리의 회의 속에서 나왔던 프로젝트는 굉장히 많았다. 이곳에 온 이유가 '프로젝트' 이 한 단어였던 팀원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시작도 해보지 않고, 시작하고 나서 다음 문제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웠고 우리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했다. 우리는 효과보다는 효율을 더 생각했었다.

사실 이 세상이 그렇다. 결과가 중요하다. 어떻게 살았건 지금 이룬 성과가 중요하고, 얼마나 빨리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성공시켰느냐가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도서관 프로젝트에서 알 수 있듯 까리따스에서조차도 바라고 우리도 바라듯, 사실 중요한 건 사람이 만드는 효과인 것이다.

국내 훈련 때 누군가 질문했다.

라온아띠 개개인에 투자한 돈을 바로 우리가 갈 지역에 투자한다면 그것이 더 큰 성과를 바랄 수 있는 것 아닌가.

나도 그 질문에 공감했다. 따지고 보면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투자되는 액수가 크다. 사람이 아닌, 돈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투자한다면 그것이 더 큰 성과를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업적인 생각이 그때는 더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지역훈련 1 개월, 파견 4 개월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 중간평가 때 지역 간사님께 들었다. 양산, 그곳 청년들이 우리를 통해 다른 시각이 생긴 것 같다고. 우리가 떠나고도 350PPM 이야기가 나왔고, 나눔이 나왔고.

지역에서의 일정이 워낙 바빠, 바쁘게만 보냈다고 생각했던, 속절없이 지나갔던 1 개월이 그냥 후다닥 지나간 것만은 아님을 증명해주는 간사님의 말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효과였다. 사람을 통한 효과.

우리는 모든 것을 잘해보고 싶었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길 바랐기에,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그 순간이 생길까 언제나 두려움이 함께했다. 효율을 포기하는, 두려움을 놓는 용기를 처음 갖은 것은 아마도 빈곤 캠페인 때가 아닐까 싶다. 빈곤 캠페인을 위한 아띠시장을 시작하기 전 우리는 예상했다. '아마 한 명도 오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게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나간 곳에는 조금씩 많은 친구들이 모여줬고 우리의 뜻을 함께해주었다. 이번 아띠시장도 그렇다. 이번 아띠시장의 모든 기획이 그날 아침, 마을로 가는 특특 안에서 그리고 팽이질을 하다 잠시 쉬는 시간에 모두 나왔다. 사실 가만히 앉아 이것저것 재기 전에 그냥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잘 하면 좋지만, 잘하지 못해도 괜찮다. 함께 해주는 사람들과 보낸 시간들이 남으니까. 우리가 함께 고민했던 시간들도 남으니까. 어찌 되었든 우리를 지나쳐만 갔던 사람들도 짧은 순간은 그들의 뇌리에 우리가 스쳐갔을 테니까.



---

글을 다쓰고나서 2 번째로 아띠시장을 열었는데 그 때의 품목은 미숫가루, 달고나, 떡꼬치였다. 친구들이 점점 기숙사를 떠났고 함께 나갔던 친구는 러띠뿐. 그래도 떡꼬치와 달고나는 성공적으로 다 팔았다.(아마 생각보다 너무 싸서 다 팔린듯....) 3 번째 아띠시장을 나간 날은 나가서 판을 버리자마자 비가왔다..... 강제종료. 3 번째 시장을 위해 만든 달고나는 다음 날 cdp 활동으로 마을에 나갔을 때, 마을 사람들에게 맛보라고 나눠주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다. 다음 번엔 많이 가져오라는 할머니의 말씀이 나왔으니까:)~

# Library project

사실 우리에게 CDP, YDP 이외의 또 다른 프로젝트가 있었다. 바로 까리타스 사무실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 책을 채워 넣는 일이다. 탄은 우리에게 이 사업에 관한 브리핑을 해주며 유스들이 책을 읽는 것에 흥미를 갖게 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책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다가, 우선 우리들이 책을 좋아하게 된 이유를 들어보기로 했다.

1.

내가 책을 좋아하게 된 건 영화를 보고 난 뒤 서점에서 원작을 찾아 읽어 보면서부터이다. 원작 책에는 영상이 미처 담지 못한 작가의 섬세한 문체와 감성이 살아있었다. 그것은 영화를 보는 것과는 다른 재미가 있었다. 영화가 마치 롤러코스터라면 책은 회전목마 같은 느낌이라고나 할까.

또한 우리 학교 도서관이 한몫을 했다. 난 우리 학교 도서관이 참 좋다. 한동안은 급격히 아침잠이 줄어들어 수업 시간 한참 전에 학교에 도착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우리 학교 꼭대기에 있는 도서관에 갔다. 우리 학교 도서관에선 내 마음대로 영화를 빌려 볼 수도 있고, 없는 책이 없었고, 피곤하면 소파에 누워 잘 수도 있고, 배고프면 밥을 먹을 수도 있었다. 다른 곳을 가지 않고 학교 도서관에만 있어도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었고 내가 무엇을 하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렇게 책에 대한 흥미가 이어져 나는 서점을 돌아다니고 북 카페, 중고서점을 찾아다니는 취미가 생겼다. 시험이 끝나면 베스트셀러, 신작 소설, 시집, 에세이집, 잡지 진열대를 돌아다니며 구미가 당기는 책을 힐끗힐끗 읽어보곤 했다. 또 최근에는 심야 북 카페, 만화카페와 같이 이색적인 콘셉트의 북 카페들이 많이 생겼고, 작가 번개나 강독회와 같이 재밌는 이벤트를 하는 서점도 많아져 왠지 모르게 몸이 가벼운 날에는 이런 곳들을 찾아 먼 발걸음을 하기도 했다.

2.

우리는 유스들이 좋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책에 대한 흥미를 이끌고, 도서관 내의 환경 조성까지를 목표로 삼았다.

가장 접근이 쉬운 건 만화책과 보드게임이었다. 책에 관심이 없거나 도서관은 왠지 딱딱하고 재미없는 곳일 것 같다는 인식을 가진 유스들에게도 그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좋은 매개물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나는 책 뒷면에 열람표를 붙여 누가 읽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소소한 재미를 주거나 자신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을 꼬리표처럼 달아놓는 책 꼬리, 마을 아이들에게 구연동화해주기 등등 여러 가지 이벤트를 생각했다.

또한 우리는 스탠드와 각종 필기도구를 비치해 책을 읽기에 더욱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고, 도서관 내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책 라벨을 붙이고 게시판을 걸어 각종 알림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3.

그렇게 우리는 계획을 짰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우리는 미리 유스들에게 읽고 싶은 책을 조사한 후 책을 구입하기 위해 프놈펜으로 향했다. 하지만 실제로 본 대형서점은 실망을 감출 수 없었다. 서적의 양이 매우 적었고 그것마저도 학술 서적이거나 정보성 위주의 책이 대부분이었다. 서적 검색대가 없어 우리는 유스들에게서 받은 종이를 점원에게 건네주어 찾아달라고 요청하였다.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었다.



4.

“도시에서는 책을 읽지 않는다. 소설은 삶의 잉여에 적합한 양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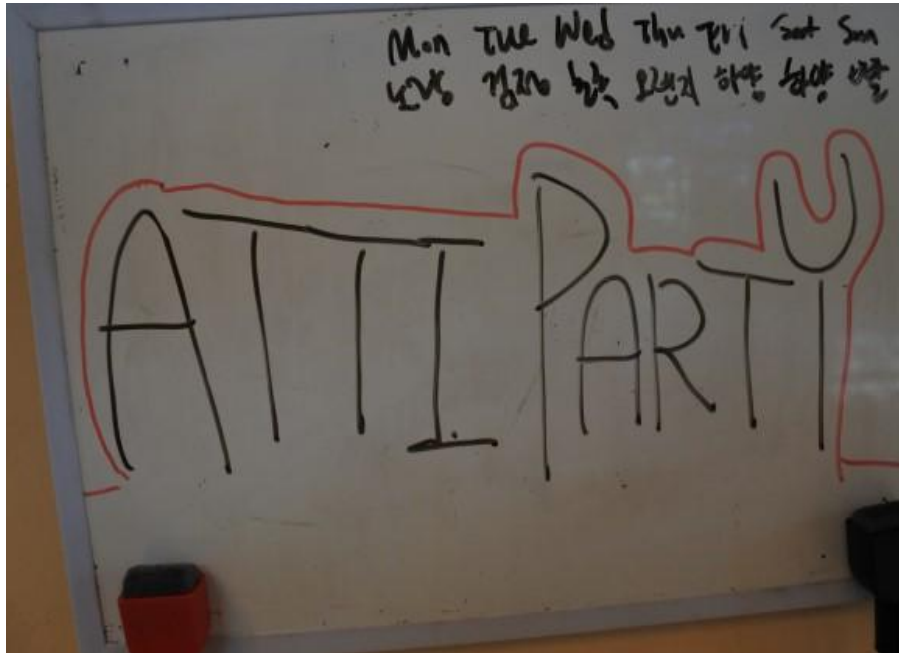
어느 책에서 읽었던 구절이다. 책을 읽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이 사치가 되어버린 요즘이다. 시간이 곧 돈인 세상에서 그렇게 책은 삶의 잉여에 적합한 양식이 되어버렸다.

같은 의미에서, 이 나라 사람들에게 책은 사치일 수 있다. 시장에서 돈을 구걸하는 아이들, 일상이

되어버린 쓰레기 무단 투기, 역주행과 무단횡단이 당연시되는 교통질서의 부재. 이곳은 책보다 복지시스템, 정/하수 시스템, 쓰레기처리장, 신호등, 도로 표지판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은 필요하다. 책을 읽어야만 이 비로소 왜 아이들이 돈을 구걸할 수밖에 없는지, 왜 인간에게 환경이 중요한지, 왜 교통 시스템이 도시 전체의 경제와 생활을 좌지우지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작은 깨달음으로 시작해 캄보디아는 더욱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 내가 도서관 사업에 더욱 공을 들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단순히 신호등 하나를 설치하는 것보다, 도서관은 더 큰 변화를 만들어 낸다. 결국, 모든 변화는 사람이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 아띠 스몰 파티 개최!



우리는 항상 초대를 받았었다.

유스들의 스몰파티, 우듬의 딸인 뼈싸이의 생일 파티 등  
탄의 마지막 날 갑작스럽게 초대를 해서 음식을 하긴 했지만  
유스들의 졸업에 맞춰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아띠 스몰 파티를 개최하기로 했다.

스몰파티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난들이 있었다.

첫번째로 음식을 뭘로 준비 할 것인가?

두번째로는 한국적인 파티를 위해선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가장 힘들었던 예산 부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였다.

우리는페이백 시스템이다. 즉 우리돈으로 먼저 사고 나서  
영수증을 제출 하면 그 다음에 다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받는 시기가 좀 걸린다.

한참 도서관 프로젝트에 열중했던 우리는 돈이 별로 없었고  
스몰파티 개최도 참으로 힘든 여정이였다.



우리는 순두부 찌개와 김말이 튀김, 용가리 치킨, 산적구이를 준비했다.  
 그리고 흑시나 배가 고플까봐 바게트 빵을 많이 준비 했다.  
 그리고 다 성인인 만큼 맥주 또한 준비했다.





3 시에 파티가 시작이었다. 초대장에 빨간색을 입고 와야 된다고 했는데 대부분이 빨간색을 입고 와서 놀랐다.



온통 빨간물결!!!!!!

처음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우리끼리 먹고 놀자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유스들은 더더욱 모여들었다.  
결국 우리 요리는 다 없어졌고 학생들이 민물게를 볶아서 요리를  
해주었다.



게임을 준비했지만 할 수가 없었다.



젠가 하나에 모두들 시선집중



각자 너무나 즐거워 했고 맛있게 먹었다.  
'쩨 까에우 무어이' 라는 캄보디아 식 건배를 외치면서  
많이 친하지 않았던 친구들과도 애기도 하고  
건배도 같이 하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 갔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문화를 떠나서  
사람과의 인연은 정말 소중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커다란 행복이다.

By 썬썬



## GAME TIME

도서관 사업의 목표 중 하나인 도서관에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모으기 위해 우리들은 도서관에 보드게임을 구비해 두었다.

그래서 이날 Atti Time 에는 사온 보드게임을 도서관에서 하면서 학생들이 도서관에 대한 문턱을 낮출 수 있게끔 하였다.

(학생들이 도서관을 생각하면 조용히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낮부터 학생들에게 '오늘 Atti Time 에는 게임을 하면서 놀 거야~'라고 말을 해서 그런지 요 근래에 들어 가장 많은 학생들이 왔다.

다들 게임한다는 생각에 즐거워서 온 것처럼 보였다. ㅎㅎ



Ludo와 젠가, 체스

우리가 준비한 보드게임은 Ludo 라는 서양식 주사위 게임, 체스, 젠가였다.

많은 학생들이 주사위 게임에 몰렸다.



주사위 게임을 하면서 신나게 노는 중~

나는 스텝 우덤과 같이 체스를 했는데 우덤은 서양의 체스 방식은 모르고 캄보디아식 체스 방식만 알고 있어서 내가 캄보디아식 체스를 배우면서 같이 게임을 했다.

(캄보디아식 체스라 내가 계속 지긴 했지만 재미있었다. ㅎㅎ)



옆에서 훈수 두는 학생 우덤

마지막에는 다 같이 젠가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나무 블록을 하나씩 뺄 때마다 위태로워지는 탑을 보면서 조마조마하다가 누군가에 의해 탑이 무너지면 다 같이 환호를 지르며 재미있게 게임을 했다.

조심스럽게 블록을 빼는 나와 재밋게 Lodo 를 하는 학생들  
 도서관에서 Game 을 하니 학생들이 도서관에 대한 선입견이 살짝 무너진 것 같아 뿌듯했다.  
 오늘을 계기로 학생들이 도서관에 자주 오기를 바란다.

-쫄쫄-

## 쿠킹클래스(feat. 축 종수양수 생일!)

12 월 9 일. 유부초밥 쿠킹클래스를 열었다. 지난번 잔치 국수 쿠킹클래스가 만족스럽지 않았던 터라 우리는 메뉴선택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음식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요리할 수 있는 음식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 아무리 생각해도 김밥과 유부초밥이 제격이었다. 이미 지난 기수들이 김밥을 함께 만들었다고 하니, 우리는 재료값도 아끼고 만드는 방법도 간편한 유부초밥을 해보기로 했다. 다행히, 프놈펜에 있는 한인마트에서 유부와 시즈닝이 들어있는 패키지를 찾을 수 있었다.





캄보디아 쌀은 찰기가 없어 아무리 손으로 뭉쳐도 자꾸만 흩어졌다. 그래도 머릿속에 그렸던대로, 유스들이 다함께 용기종기 모여 유부초밥을 만드는 모습에 우리는 오랜만에 성공적인 클래스를 여는 것 같아 흐뭇했다.





동시에, 12 월 9 일은 종수오빠의 생일이다. 유치하지만, 아무것도 준비 안한척, 열심히 쿠킹클래스에 집중하는 척 했다. 눈치를 못챈건지, 아니면 모르는척 해준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빠는 좋아해주었다.



추억의 초코파이케이크!

그리고 그 다음주에 있었던 양수오빠의 생일! 우리는 특별한 날엔 돈아까지 말자며 이온물에서 거한 외식을 했다. 요 며칠간, 우리들의 배는 꺼질 줄 모른다.



우린 CDP도 한다

## 드디어 수확

드디어 우리가 많은 정성과 노력으로 가꾼 시금치와 상추를 수확하였다.  
(우하하~~~ 우리들 땀의 결실이라 해야 할까...ㅎㅎ)



어느덧 많이 자란 우리 채소들~~~

그런데...

아직 채소들이 다 자라지도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일찍 수확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키운 채소들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 오래 두었다가는 팔수 없을 정도가 되기 때문이다...



담과 벌레들 때문에 상처 입은 이파리들...

우리가 유기농으로 채소를 재배하기 때문에 벌레가 많아 벌레들이 갉아먹고 이파리 뒤에는 많은 진딧물과 진딧물 알들이 수두룩해 상태가 나빠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변에서 방목하며 키우는 닭들이 이파리를 계속해서 쪼아 먹어 채소가 많이 상했기 때문이다...ㅠㅠ (이눔에 닭들.....)

한국이었다면 농약을 치거나 천연 벌레 퇴치제 (ex.목축액)를 만들어 사용했을 텐데...

우리가 키우는 유기농 채소는 물과 거름이 끝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벌레가 많은 거 같다.



우리들은 칼을 들고 밭으로 가 상태가 괜찮은 채소들을 하나하나 밑동을 잘라서 정성스레 수확을 하였다.

그런데 대부분이 상태가 좋지 않았고 많이 여린 채소들뿐이어서 씁쓸했다.



수확한 채소들~

우리가 수확한 채소들을 한 군데에 모아보니 양이 얼마 되지 않았다...

수확한 채소들을 보니 대부분이 이파리에 구멍이 뚫려 있고 이파리 뒤에는 많은 진딧물과 알들이 수두룩해서 상품성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수확한 채소들을 세척했다.^^



깨끗하게 세척!

큰 대야에 물을 담아두고 채소를 일일이 깨끗하게 하나하나 닦았다.

(세척을 하는데 진딧물들이 팔을 타고 올라오는데 얼마나 간지럽던지...ㅠㅠ)

세척을 하고 나니 전보다는 훨씬 깨끗하고 상태가 좋아보였다.ㅎㅎ



수확한 채소들을 가지런히 정돈하고 무게를 달아보니 시금치는 약 10.9kg, 상추는 5kg 정도 되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노력의 결실이어서 많이 뿌듯했다.~)

## 도희와 함께 떠나는 프놈펜 여행

주말이 되었다.  
심심했다.  
그래서 떠났다.  
프놈펜으로 떠나는 무작정 여행  
With 도희



한국 중고버스 수입인가 보다.



캄보디아에는 버스가 많이 없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보니 일단 여기는 거의  
1인 1모토 세대에 가까운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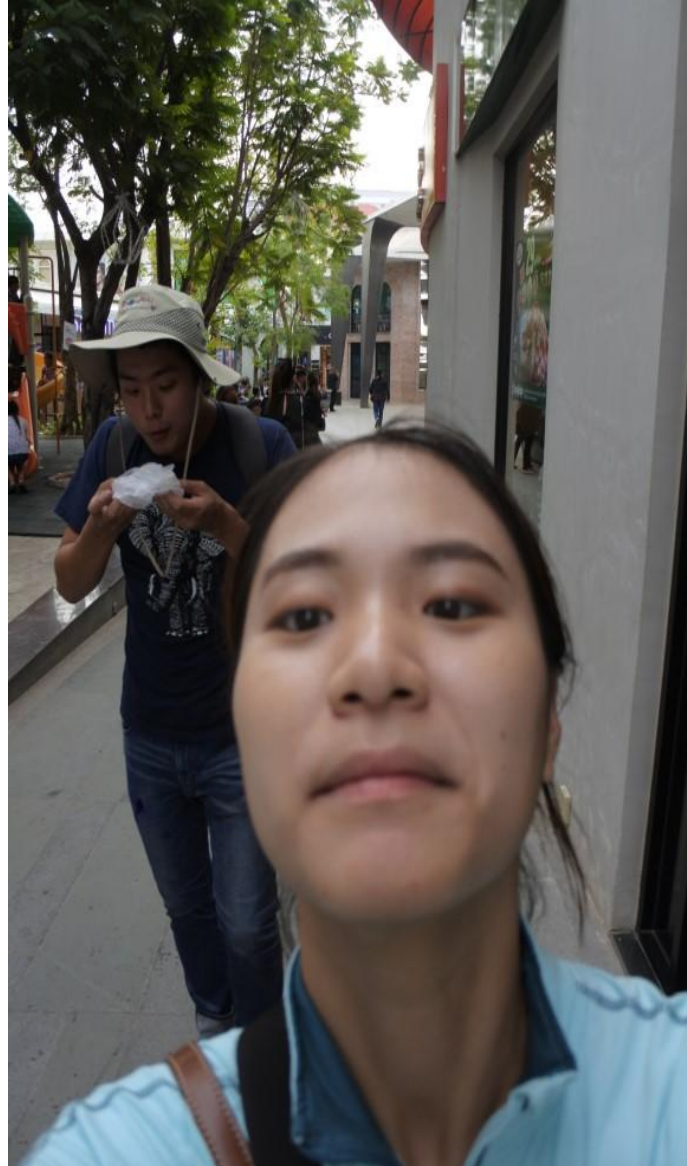
그래서 수도인 프놈펜에도 총 3 개의 버스밖에 없고  
타는 사람도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다.

버스 번호는 1,2,3

그 중에 따끄마으로 오는 2 번버스를 타고

우리는 프놈펜으로 출발했다.

내릴 곳은 따로 정하지 않은채로.



우리는 뿔곡이라는 곳에서 내렸다.

여기는 작은 쇼핑거리가 있는 곳이다.

이런곳에도 여전히 있는 스타벅스를 보면서  
자본주의의 힘은 대단하다고 또 느끼게 된다.





배가 고팠기에 여러가지 음식을 먹었다.  
그 중 이곳의 바게트와 꼬지, 그리고 야채 튀김은 정말  
맛있었다!  
사진에 보이는 매콤한 소스안에도 마늘이 들어 있어서  
한국적인 매움이라 더욱 맛있었다.  
튀김인지 구운건지..ㅋ  
그리고 나선 우리는 하염없이 걸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뚝곡을 지나 회전로를 거쳐  
왓 프놈을 지나서  
2번 종점이 있는 나이트 마켓으로 우리는 걸어갔다.





새로운 곳을 걷는 다는 것은  
아주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다.  
여러가지를 구경할 수도 있고  
특특으로 지나칠 때는 차마 느끼지 못했던  
사람 사는 향기를 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좋다

우린 그렇게 나이트 마켓에 도착했고  
버스가 약 1 시간 뒤에 온다고 해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나이트 마켓에 들어가  
옷도 구경하고 먹을 것도 구경했다.



그리고... 우린 버스를 1분차이로 놓쳤다.  
하지만 무작정 여행이란 것이 이렇게 묘미 아니겠는가?  
그냥 또 걷고 보다가  
특특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나름 보람있는 하루였고 재미있었다!



By 쑤쑤

## 버스타어 2탄

양수와 떠났던 프놈펜 버스타어가 성공적이었지만 종점은 못 찍었기에 그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이번엔 승연이와 2번 버스의 종점을 찍으러 나섰다.



따끄마의 2번 버스정류장과 2번 버스노선

버스는 15분 간격으로 온다고 했는데 이번에 승연이와의 버스타어에서 우리는 시작부터 40분 정도 기다렸던 것 같다. 아마도 이걸 복불복.....

앞서 양수가 말했듯 이곳의 버스는 모두 한국의 중고버스를 수입한듯하다. 버스만 타면 이곳이 한국인가 싶다. 아주 익숙한 풍경이다. 에어컨도 빵빵해서 20분 정도 타고 있으면 춥다. 정말 뜨거운 날은 차라리 버스를 타는 것도 방법인듯싶다.

캄보디아의 시내버스 시스템은 2014년에 도입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옛날 우리나라에 버스 안내양이 있었던 것처럼 이곳에도 기사님 말고 요금을 받는 분이 따로 계신다. 버스를 타고 자리에 앉으면 그분이 내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돈을 받고, 티켓을 나누어준다.(꼭 1500 리엘 맞춰서 타야 합니다. 잔돈 없습니다.) 이 분은 할머니, 할아버지 등 몸이 불편한 분들이나 짐이 많은 분들이 버스를 타고 내릴 때 도와주시고, 길도 알려주시고 버스 안에서는 거의 만능이다.



양수와 버스투어를 떠났을 때 마음에 드는 곳에 갑자기 내려버려서 그다음 정류장까지 찾아간다는 게 거의 2시간 이상을 걸었던... 아주 건강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엔 중간에서 내리지 않고 정류장 위치 파악과 길을 익히는 것에 집중했다.

2번 버스의 종점은 나이트마켓. 양수와 한 번 먼저 가보았다고 겨우 1번 더 가본 내가 승연이에게 프놈펜 나이트마켓 이곳저곳을 소개해주었다. 나이트마켓도 즐기고 집에 돌아가는 2번 버스를 타고 우리는 무사히 2번 버스 투어를 마쳤다.



그리고 3일 후, cdp가 아침에 취소되자 그 길로 나와 승연이는 나머지 버스 노선의 정복에 나섰다. 우선 결정된 것은 1번.



1 번의 노선은 2 번과 겹치는 부분이 아주 약간 있다. 그곳에서 우린 내렸고 곧 오는 1 번 버스를 드디어 탈 수 있었다. 2 번과는 다른 풍경의 길들이 보였고 이곳저곳 살펴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버스 안에서 3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종점을 찍었고 집으로 가는 2 번 버스가 있는 정류장에서 내려 2 번 버스를 타고 무사히 컴백했다!!!

특특은 택시와 비슷하다. 우리가 말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간다. 하지만 버스는 목적지가 특별히 있지 않더라도 그냥 몸을 실으면 어디든 데려가 준다. 버스 안에서 나는 멍하니 가만히 있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졸리면 졸기도 하고, 타고 내리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있기도 하고, 창밖의 지나가는 곳곳을 보기도 하고, 나를 통해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남기고 싶은 생각, 남기고 싶은 순간들을 마음에 담아 바로바로 메모도 하고 그림도 그린다. 버스에는 많은 순간들이 오고 간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기에 버스만큼 좋은 곳이 또 있을까.



이제 3 번 버스만 남았다. 곧 3 번 버스도 정복하겠다!

메익

# 개인 에세이

## 꼬꼬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약 한 달 남았다.

한 달...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이다.

이 한 달 동안에 이곳에서 즐긴 시간들을 추억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동안 언제나 밝은 미소로 반겨주시는 할머니와 우땀 식구들... 그리고 우리들은 친한 친구처럼 반겨주는 학생들과 마을 아이들...

우리를 집사로 생각하는 츠마들...

이 밖에도 많은 사람들과 작별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맞이해야 할 한국에서의 생활도 준비를 해야 한다...

한국에서의 생활.....

이렇게 나는 이곳에 처음 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마 한국가기 전까지... 생각만 많아진 것 같다.

<생각이 많은 것은 득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득이다.>

- 기획은 2형식이다(남충식) -

## 뿌뿌

12월 나의 에세이

캄보디아에서의 12월은 나에겐 참으로 갈대같은 달이었다.

가장 행복했으면서도 가장 힘들기도 했던 그런 달이었다.

라운아띠 활동 중 가장 크게 얻고 간다고 생각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였다. 그 관계라는 것이 길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정말 어렵고 또 많이 힘들게도 하고 많이 기쁘게도 한다.

어느덧 1월이 되었고 약 한달이라는 시간이 남게 되었다. 지난 4개월 동안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왔는지 뒤돌아보면 정말 별 것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여기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영향이나 마 미치고 있는지조차 모르겠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도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

국제자원활동이라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도 명확해 지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일에 있어서나 자신이 국제적으로 생각을 넓게 가지게 된 것은 라운아띠를 하기 전의 나와 확실한 차이점인 것 같다.

라운아띠라는 그 뜻. 좋은 친구들이라는 뜻 처럼 나 역시 여기서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과 좋은 친구들이 되려고 노력했고 많은 좋은 친구들이 생겼기에 이 사실 하나만은 만족할 수 있을 것도 같다.

남은 한달은 나 자신을 좀 더 되돌아 보고자 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한국에 돌아갔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도 세워보고 또 남은 시간 내가 캄보디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해볼 것이다.  
새롭게 마음을 다 잡길 바라면서 1월도 화이팅이다!

## 망고

갓가지 일이 있었지만, 다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있다. 살아 있는 한, 언젠가는 괴로운 일도 있으리라. 그래도 또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눈앞에 나타나준다. 반드시.

요시모토 바나나, <무지개>

## 메이쿠

정도희!

누군가 '메익'이 아닌, 나의 한국 이름을 부르는 줄 알았다. 그래서 깜짝 놀라 둘러보았는데 그곳에는 그 누구도 정도희라고 외친 사람은 없었다. 아니, 그 이름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생각해보니 캄보디아에서 나를 '도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다. 바로 우리 팀, 나와 동갑인 양수. 또 생각해보니, 양수도 '양수'라는 이름을 들을 수 있는 건 내가 불러줄 때뿐이다.

서로 이런 의미에서는 유일한 존재이다. 만약 양수가 없었더라면 아무도 캄보디아에서 나를 '도희'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12월 어느 날, 툭툭에서 이런 낭만적인 생각을 했었었다.

이도 저도 마땅치 않은 저녁  
철이른 낙엽 하나 슬며시 곁에 내린다.

그냥 있어볼 길밖에 없는 내 곁에  
저도 말없이 그냥 있다.

고맙다.  
실은 이런 것이 고마운 일이다.

-김사인, [조용한 일]



김사인 시인이 말하듯,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

이곳에 와서 동갑인 팀원 양수와 가장 많이 부딪혔음에도 이곳에서 나에게 양수는 '도희'라는 이름을 불러주는 특별한 사람이다.

의미 없다고 생각되는 너무나도 일상적인 순간도, 지나쳐가는 인연일 뿐이라고 생각되는 아주 작은 인연도, 때로는 나를 지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순간이나 사람도, 다른 시각으로는 나에게 유일한, 특별한, 소중한 순간이자 사람이 된다.

양수만이 아니라 승연이, 종수, 까리따스 친구들, 마을 할머니, 과일가게 아줌마 등 그냥 내 곁의 모든 사람들이 고맙다.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 곁에 있기에.

책에서 '출생에서 죽음 사이를 잇는 선 위에 관측소를 세운다면 각각의 관측소에서 세상은 다르게 보인다'는 구절을 읽었다. 오늘은 2017년 1월 3일이다. 2017년이 된 지 3일이 지났고 나는 또 한 살 더 먹었다. 그래서인지 난 일주일 전과는 다른 관측소에서 있는 기분이다.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 다른 시각이 존재할 뿐.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지나가고 나이가 드는 것이 아쉽지만은 않다. 때로는 흥미진진하고 신나는 일이다. 또 다른 관측소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니까. HAPPY NEW YEAR.